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에서의 프리젠티즘: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바탕으로

홍상희¹⁾, 장은철²⁾, 권순찬²⁾, 이화영³⁾, 송명제⁴⁾, 김종선⁴⁾, 문민음⁵⁾, 김상현²⁾, 윤지석²⁾, 민영선²⁾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의과학과¹⁾, 순천향대 천안병원 직업환경의학과²⁾,
순천향대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³⁾,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⁵⁾

Presenteeism i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ing Workers: Based on the 6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Sang-Hee Hong¹⁾, Eun-Chul Jang²⁾, Soon-Chan Kwon²⁾, Hwa-Young Lee³⁾,
Myoung-Je Song⁴⁾, Jong-Sun Kim⁴⁾, Mid-Eum Moon⁵⁾, Sang-Hyeon Kim²⁾, Ji-Suk Yun²⁾, Young-Sun Min²⁾
*Soonchunh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al science, Asan-si, South Korea¹⁾,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Cheonan-si, South Korea²⁾, Department of psychiatry,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Cheonan-si, South Korea³⁾,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Incheon-si, South Korea⁴⁾,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Gangnam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South Korea⁵⁾*

= Abstract =

Objectives: Presenteeism is known to be a much more economically damaging social cost than disease rest while going to work despite physical pain. Since COVID-19, social discussions on the sickness benefit have been taking plac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presenteeism, and in particular, farmers and fishermen do not have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livelihood support when a disease other than work occurs.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gricultural, fishing, and forestry workers and presenteeism using the 6th Korean Work Conditions Survey.

Methods: From October 2020 to January 2021, data from the 6th working conditions survey conducted on 17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were used, and a total of 34,981 people were studied. Control variables were gender, age, self-health assessment, education level, night work, shift work, monthly income, occupation, working hours per week, and employment status.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armers and fishermen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and the elderly, and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when farmers and fishermen analyzed the relationship with presenteeism tendency compared to other industry workers, farmers and fishermen increased by 23% compared to other industry groups.

* Received October 9, 2023; Revised November 12, 2023; Accepted February 27, 2024.

* Corresponding author: 민영선,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우: 31151)

Young-Sun Min,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31, Suncheonhyang 6-gil, Cheonan-si, Chungcheongnam-do, 31151, Korea

Tel: +82-41-570-1711, Fax: +82-41-570-2114, E-mail: mys0303@gmail.com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oonchunhyang University Research Fund.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representation by utilizing the 6th working conditions survey and objectively suggests the need for a sickness benefit for farmers and fishermen who may be overlooked in the sickness benefit.

Key Words: Presenteeism, Agricultural Workers, Sickness Benefit

서론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이란, 몸이 아픈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을 한 상태를 말한다[1]. 기존 프리젠티즘은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는 효능과 안전에 대한 정의에 대한 해석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건강 개입의 평가 기준을 확대되었는데 특히, 노동자 건강 보험에 대한 개입 비용의 상쇄라는 측면에서 보건학적 영역에서도 중요한 이슈라 할 것이다[2]. 특히, COVID-19 판데믹에 따른 경제적 악화로 인하여 많은 조직들이 생산적이고 수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면서 프리젠티즘의 비용이 질병휴식(병가)보다 훨씬 더 경제학적으로 손해라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3]. 따라서 COVID-19 이후, 국내에서도 아픈 근로자들이 치료와 소득 상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이 검토되었으며[4],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북 익산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단계에 따라 다르나, 자영업자의 경우 일부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다 할지라도 자격 기준으로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하여야 한다[5,6]. 자영업자가 상병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존재하나, 대한민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으며, 취약근로자 특히 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함)는 업무 이외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생계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5,7].

농림어업인과 관련한 프리젠티즘 관련 이전의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지금까지 총 139편의 연구가 농업 종사자 관련 프리젠티즘 유병률에 대한 연구 중, 2편만이 적합한 연구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열악한 작업 안전 환경이 프리젠티즘의 유병률과 강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8]. 즉, 아직까지 농림어업종사자들에 대한 프리젠티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대표자료인 제6차 한국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를 이용하여 대표성을 띠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프리젠티즘 경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6차 KWCS를 이용하여 농림어업종사자와 프리젠티즘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국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수행된 공공데이터(제6차 KWCS)를 활용하였으며, 총 50,53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 거절자, 미응답자 및 결측자를 제외한 총 34,91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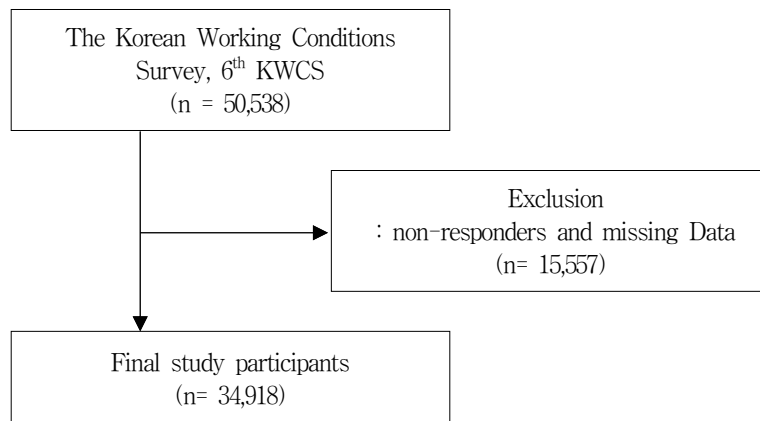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the study population selection including recruitment and exclusion criteria

2. 연구도구와 연구변수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IRB NO. 2023-08-037). 연구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프리젠티즘

프레젠티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지난 12개월 동안(또는 본 보수 일을 시작한 이후) 아팠는데도 일을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아니다”, “아프지 않았다”로 구분되었고, “그렇다”는 답변이 나오면 프레젠티즘으로 간주하였으며 나머지 답변은 프레젠티즘으로 간주하지 않았다[9].

2)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코드 분류에 따라 농업(소분류 코드 01), 임업(소분류 코드 02), 어업(소분류 코드 03)을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농림어업인)로 분류하였다. 그 외를 농업, 임업 및 어업 이외 산업 종사자로 분류하였다.

3) 공변량

본 연구는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직업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자가 건강평가, 교육수준을 고려하였으며, 직업적 통제변수로는 야간근무, 교대근무, 월소득, 직종, 주당 근로시간, 고용상태를 평가하였다.

연령은 “40세 미만”,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자가 평가 건강 상태는 참가자들에게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하여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의 응답은 “좋은 건강”으로, “보통”,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의 응답은 “보통 혹은 나쁜 건강”으로 간주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교대 및 야간 근무는 근무 상태를 기준으로 “예” 또는 “아니오”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월소

득은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이백만원 미만”, “이백만원 이상 삼백만원 미만”, “삼백만원 이상 사백만원미만”, “사백만원 이상”의 4분위로 분류하였다. 직종은 “전문직 및 관리직”, “사무직”, “영업 및 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하였으며,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 “15 - 34시간”, “35 - 39시간”, “40 - 51시간”, “52 - 67시간”, “≥ 61시간”으로 분류하였다. 고용상태는 “자영업자”,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였다.

4) 통계분석

모든 자료는 SPSS for Windows software (ver. 26.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자료간의 유의성은 chi-square 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p < 0.05$ 를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농림어업인의 경우 그 이외산업에 비해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았다. 또한 교육수준에서도 농림어업인이 저학력자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월소득 수준 또한 200만원 미만(70.6%)이 가장 많았다, 또한 농림어업인은 대다수가 자영업자(94.0%)였으며, 대다수가 생산직(96.8%)에 종사하였다. 근로시간의 경우 농림어업인 이외 직종이 주 40시간에서 51시간(61.4%)이 가장 많은 반면, 농림어업인은 주 15시간에서 34시간(39%)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교대근무자와 야간근무자는 거의 없었으며, 자가평가 건강상태에서 보통이거나 아픈 비율(63.6%)이 높았다.

2. 프리젠티즘 유병율

총 34,981명의 대상자 중 프리젠티즘을 호소하는 대상자는 4432명(12.7%)이었으며, 각 변수별 분석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Groups engaged in industries other tha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n=32,638)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ing groups (n=2,343)	p†
Sex			<0.001
Male	24,704 (75.7%)	1,528 (65.2%)	
Female	7,934 (24.3%)	815 (34.8%)	
Age (years)			<0.001
<40	10,245 (31.4%)	36 (1.5%)	
40-49	6,853 (21.0%)	88 (3.8%)	
50-59	8,411 (25.8%)	268 (11.4%)	
≥60	7,129 (21.8%)	1,951 (83.3%)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0.001
Elementary school graduates or lower	1,847 (5.7%)	1,163 (49.6%)	
Middle school graduates	2,149 (6.6%)	492 (21.0%)	
High school graduates	12,430 (38.1%)	547 (23.3%)	
College graduates or higher	16,212 (49.7%)	141 (6.0%)	
Income(million Korean won)			<0.001
< 2 million	9,580 (29.4%)	1,655 (70.6%)	
2-2.99 million	10,686 (32.7%)	377 (16.1%)	
3-3.99 million	6,993 (21.4%)	182 (7.8%)	
≥4 million	5,379 (16.5%)	129 (5.5%)	
Employment status			<0.001
Employer	9,226 (28.3%)	2,203 (94.0%)	
Regular	18,135 (55.6%)	43 (1.8%)	
Temporary	4,038 (12.4%)	22 (0.9%)	
Daily	1,239 (3.8%)	75 (3.2%)	
Occupation			<0.001
Professional and managerial	196 (0.6%)	0 (0%)	
White collar	11,494 (35.2%)	14 (0.6%)	
Service/sales	5,392 (16.5%)	1 (0%)	
Blue collar	11,517 (35.3%)	2,268 (96.8%)	
Laborer	4,039 (12.4%)	60 (2.6%)	
Weekly working hours			<0.001
< 15	1,906 (5.8%)	211 (9.0%)	
15-34	3,741 (11.5%)	913 (39.0%)	
35-39	890 (2.7%)	204 (8.7%)	
40-51	20,037 (61.4%)	801 (34.2%)	
52-67	4,731 (14.5%)	160 (6.8%)	
≥68	1,333 (4.1%)	54 (2.3%)	

Shift works			<0.001
No	30,106 (92.2%)	2,340 (99.9%)	
Yes	2,532 (7.8%)	3 (0.1%)	
Self-rated health			<0.001
Good	22,928 (70.2%)	853 (36.4%)	
Fair or poor	9,710 (29.8%)	1,490 (63.6%)	
Night works			<0.001
No	29,977 (91.8%)	2,305 (98.4%)	
Yes	2,661 (8.2%)	38 (1.6%)	
Size of company			<0.001
<50	25,201 (77.2%)	2,338 (99.8%)	
50-299	3,955 (12.1%)	5 (0.2%)	
≥300	3,482 (10.7%)	0 (0%)	

† Calculated by χ^2 test.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according to presenteeism

	Total (n=34,981)		p†
	Presenteeism		
	No (n=30,549)	Yes (n=4,432)	
Sex			<0.001
Male	23,029 (87.8%)	3,203 (12.2%)	
Female	7,520 (86.0%)	1,229 (14.0%)	
Age (years)			<0.001
<40	9,270 (90.2%)	1,011 (9.8%)	
40-49	6,026 (86.8%)	915 (13.2%)	
50-59	7,523 (86.7%)	1,156 (13.3%)	
≥60	7,730 (85.1%)	1,350 (14.9%)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0.001
Elementary school graduates or lower	2,438 (81.0%)	572 (19.0%)	
Middle school graduates	2,233 (84.6%)	408 (15.4%)	
High school graduates	11,383 (87.7%)	1,594 (12.3%)	
College graduates or higher	14,495 (88.6%)	1,858 (11.4%)	
Income (million Korean won)			0.013
< 2 million	9,729 (86.6%)	1,506 (13.4%)	
2-2.99 million	9,715 (87.8%)	1,348 (12.2%)	
3-3.99 million	6,311 (88.0%)	864 (12.0%)	
≥4 million	1,794 (87.0%)	714 (13.0%)	
Employment status			<0.001
Employer	9,653 (84.5%)	1,776 (15.5%)	
Regular	16,031 (88.2%)	2,147 (11.8%)	
Temporary	3,711 (91.4%)	349 (8.6%)	
Daily	1,154 (87.8%)	160 (12.2%)	

Occupation			<0.001
Professional and managerial	177 (90.3%)	19 (9.7%)	
White collar	10,163 (88.3%)	1,345 (11.7%)	
Service/sales	4,632 (85.9%)	761 (14.1%)	
Blue collar	11,965 (86.8%)	1,820 (13.2%)	
Laborer	3,612 (88.1%)	487 (11.9%)	
Weekly working hours			<0.001
< 15	1,914 (90.4%)	203 (9.6%)	
15-34	4,101 (88.1%)	553 (11.9%)	
35-39	945 (86.4%)	149 (13.6%)	
40-51	18,435 (88.5%)	2,403 (11.5%)	
52-67	4,062 (83.1%)	829 (16.9%)	
≥68	1,092 (78.7%)	295 (21.3%)	
Shift works			<0.001
No	28,394 (87.5%)	4,052 (12.5%)	
Yes	2,155 (85.0%)	380 (15.0%)	
Self-rated health			<0.001
Good	21,885 (92.0%)	1,896 (8.0%)	
Fair or poor	8,664 (77.4%)	2,536 (22.6%)	
Night works			<0.001
No	28,364 (87.9%)	3,918 (12.1%)	
Yes	2,185 (81.0%)	514 (19.0%)	
Size of company			0.657
<50	24,027 (87.2%)	3,512 (12.8%)	
50-299	3,473 (87.7%)	487 (12.3%)	
≥300	3,049 (87.6%)	433 (12.4%)	

† Calculated by X^2 test.

성별의 경우, 여성은 14%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12.2%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에 있어서는 200만원 이하의 직업군이 13.4%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직업군이 12%로 가장 적은 유병률을 보였다. 또한 직종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업군이 14.1%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직업군이 9.7%로 가장 적은 유병률을 보였다.

주요 산업군별 프리젠티즘 유병률은 Table 3과 같으며, 농림어업인에 대하여 성별, 나이, 근로시간, 임금 등에 따른 프리젠티즘 분포는 Table 4와 같다.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의 경우 19.3%가 프리젠티즘을 호소하였으며,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각각 11.4%, 12.0%를 보였다.

3. 회귀분석 결과

농림어업인의 산업과 프리젠티즘 경향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조교차비(Crude Odd Ratio, COR) 및 각 모델별 보정교차비를 구하였다(Table 5). 프리젠티즘 경향성은 농림어업인이 다른 산업 그룹보다 72.1% 높았다(COR: 1.721, 95% 신뢰 구간 [CI]: 1.545 - 1.917). 성별, 연령, 자가 건강평가,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적 통제요인을 보정한 모델 1에서는 프리젠티즘 경향성은 농림어업인이 다른 산업 그룹보다 약 23% 높았다(odds ratio [OR]: 1.236, 95% CI: 1.094 - 1.398).

Table 3. Presenteeism by major industries

	Presenteeism		p [†]
	No	Yes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ing industry (n=2,343)	1,891 (80.7%)	452 (19.3%)	<0.001
Manufacturing industry (n=4,809)	4,260 (88.6%)	549 (11.4%)	
Construction industry (n=2,073)	1,824 (88.0%)	249 (12.0%)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 (n=6,119)	5,402 (88.3%)	717 (11.7%)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businesses (n=1,353)	11,83 (87.4%)	170 (12.6%)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business (n=3,645)	3,149 (86.4%)	496 (13.6%)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n=756)	659 (87.2%)	97 (12.8%)	
Financial protection business (n=999)	886 (88.7%)	113 (11.3%)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n=3,222)	2,815 (87.4%)	407 (12.6%)	

Mining-related industry(mid-category industrial codes 05, 07, 08),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industry(35), water, sewage and waste disposal, raw material regeneration industry(36-39), real estate(68),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70-73),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74-76),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an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84), education service(85),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90-91),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94-96), employment activities within households and self-consumption production activities(97-98) and international and foreign institutions(99) are excluded

† Calculated by χ^2 test.

Table 4.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according to presenteeism i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ing workers

	Total (n=2,343)		p [†]
	Presenteeism		
	No (n=1,891)	Yes (n=452)	
Sex			<0.001
Male	1,267 (82.9%)	261 (17.1%)	
Female	624 (76.6%)	191 (23.4%)	
Age (years)			<0.001
<40	32 (88.9%)	4 (11.1%)	
40-49	81 (92.0%)	7 (8.0%)	
50-59	232 (86.6%)	36 (13.4%)	
≥60	1,546 (79.2%)	405 (20.8%)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0.001
Elementary school graduates or lower	873 (75.1%)	290 (24.9%)	
Middle school graduates	411 (83.5%)	81 (16.5%)	
High school graduates	479 (87.6%)	68 (12.4%)	
College graduates or higher	128 (90.8%)	13 (9.2%)	
Income(million Korean won)			0.013
< 2 million	1,314 (79.4%)	341 (20.6%)	
2-2.99 million	316 (83.8%)	61 (16.2%)	
3-3.99 million	155 (85.2%)	27 (14.8%)	
≥4 million	106 (82.2%)	23 (17.8%)	
Employment status			<0.001
Employer	1,768 (80.3%)	435 (19.7%)	
Regular	40 (93.0%)	3 (7.0%)	
Temporary	19 (86.4%)	3 (13.6%)	
Daily	64 (85.3%)	11 (14.7%)	
Weekly working hours			<0.001
< 15	183 (86.7%)	28 (13.3%)	
15-34	736 (80.6%)	177 (19.4%)	
35-39	162 (79.4%)	42 (20.6%)	
40-51	650 (81.1%)	151 (18.9%)	
52-67	120 (75.0%)	40 (25.0%)	
≥68	40 (74.1%)	14 (25.9%)	
Shift works			<0.001
No	1,888 (80.7%)	452 (19.3%)	
Yes	3 (100%)	0 (0%)	
Self-rated health			<0.001
Good	802 (94.0%)	51 (6.0%)	
Fair or poor	1,089 (73.1%)	401 (26.9%)	
Night works			<0.001
No	1,861 (80.7%)	444 (19.3%)	
Yes	30 (78.9%)	8 (21.1%)	
Size of company			0.658
<50	1,887 (80.7%)	451 (19.3%)	
50-299	4 (80.0%)	1 (20.0%)	

† Calculated by X^2 test.

야간근무, 교대근무, 월소득, 직종, 주당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직업정 특성을 보정한 모델 2에서도 농림어업인이 다른 산업 그룹보다 프리젠티즘 경향이 72.9% 높았다(OR: 1.729, 95% CI: 1.527

- 1.58). 모든 변수가 보정된 모델 3에서는 농림어업인이 다른 산업 그룹에 비해 프리젠티즘 경향이 23% 증가하였다(OR: 1.230, 95% CI: 1.075 - 1.408).

고찰

한국근로환경조사(KWCS)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대한민국의 근로환경을 대표적으로 조사하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조사이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노동구조, 작업환경, 작업의 직업적 특징, 근로조직, 근로시간, 조직 내 의사소통, 근로자의 사회심리적상태, 건강지표, 직업만족도, 인구학적 특징 등이 있으며[10] 연구집단의 대표성과 타당도를 높은 대표자료라 할 것이다. 6차 KWCS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에서 다른 인구통계학적 요소 및 직업적 요소를 제외하고라도 농림어업인에서 프리젠티즘 경향이 23%나 증가(Table 5)하였다. 다시 말해 농림어업인은 평균적으로 아플 때,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며, 농림어업인의 건강 악화는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5].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프리젠티즘은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져 노동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주게 된다[11, 12]. 생산성 손실과 관련하여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연구[13]에서도 프리젠티즘은 결근에 비해 발생한 비용보다 약 8배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5].

이전 농업인 프리젠티즘 유병률 연구에서도

농업인의 프리젠티즘의 유병률은 각각 미국에서는 5.0%[14], 브라질에서는 58.2%[15]이라 제시하였으며[8] 본 연구에서는 19.3%(Table 3)로 나타났다. 이는 각국의 경제적 제반사정, 산업보건체계,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본 연구와 다른 나라의 이전 연구의 결과는 농림어업인의 건강 영향이 프리젠티즘의 경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보건학적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추후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농림어업인의 프리젠티즘을 감소를 위해 건강을 개선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킨다 할 것이다[16]. 또한 제도적으로 농림어업인 직종 종사자의 프리젠티즘 경향을 줄이기 위해 유급 병가 및 다양한 노동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현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자영업자의 경우 i)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하면서 ii)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을 모두 만족하여야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바, 농림어업인 특성상 대다수가 자영업자이며(94.0%, Table 1),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70.6%, Table 1)라는 점에서 현 시범사업 기준에서 상병수당 자격이 될 수 있는 농림어업인 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5].

Table 5.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for presenteeism trends by industry

Industry	COR (95% CI)	Model 1 (95% CI)	Model 2 (95% CI)	Model 3 (95% CI)
Workers in industries other tha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f	Ref	Ref	Ref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workers	1.721 (1.545-1.917)***	1.236 (1.094-1.398)**	1.729 (1.527-1.958)***	1.230 (1.075-1.408)**

Model 1 Adjusted by gender, age, self-health assessment and education level

Model 2 Adjusted by night work, shift work, monthly income, occupation, working hours per week, and employment status

Model 3 Adjusted by gender, age, self-health assessment, education level, night work, shift work, monthly income, occupation, working hours per week, and employment status

***p < 0.001, **p < 0.01.

CI : Confidence Interval

COR : Crude Odd Ratio.

프레젠티즘이 근로자 개인적 성향이 아닌, 사회적 문제 예를 들어 대체 인력 부족, 생계 수단 결여가 복합적으로 작동되는 현실로 미루어 볼 때, 농림어업인에서의 사회보장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5].

유럽의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든 농림어업인이 일정 보험료를 부담하여 2주 이상의 질환으로 인해 작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부재에 대한 비용 전액을 충당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0.25 헥타르 이상의 농장 소유자는 상해보험이 의무적이며, 여러 농업 교육과 기술 지원 또한 보험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17].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여 농림어업인 등에 있어 치료 및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와 비슷한 성격의 세부적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6차 근로환경조사라는 국가 대표 자료를 활용하여 농림어업인 산업군에 있어 프리젠티즘 경향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특히 프리젠티즘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코드 분류를 활용하여 산업군을 분류해 진행한 연구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상병수당에 있어 보호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농림어업인에 대한 상병수당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본 연구는 현재 연구의 단면적 특성상 농림어업인 직종 종사와 프리젠티즘 경향성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둘째, 음주, 흡연, 기타 만성질환 등의 발생가능한 교란요인들이 근로환경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다. 셋째, 근로환경조사 특성상 원시 자료가 자가 보고형으로 수집되었는데 이는 정보편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요 약

프리젠티즘이란, 몸이 아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을 한 상태로 사회적 비용이 질병휴식

보다 훨씬 더 경제학적으로 손해라 알려져 있다. COVID-19 이후, 프리젠티즘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농림어업인 근로자는 업무 이외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생계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6차 한국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농업, 어업 및 임업종사자와 프리젠티즘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국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수행된 제6차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총 34,98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자가 건강평가, 교육수준, 야간근무, 교대근무, 월소득, 직종, 주당 근로시간, 고용상태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농림어업인은 자영업자, 고령자의 특성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농림어업인은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해 프리젠티즘 경향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을 때 모든 변수가 보정된 모델에서 농림어업인은 다른 산업 그룹에 비해 프리젠티즘 경향이 23%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대표성을 지닌다는 점, 상병수당에 있어 간과될 수 있는 농림어업인에 대하여 상병수당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Johns G. Presenteeism in the workplace: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 Organ Behav* 2010;31(4):519-542.
2. Leka S, Sinclair RR. & Houdmont J. (Eds.). *Contemporary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ume 2: Global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Practice (Vol. 1)*. Oxford, John Wiley & Sons, 2012, pp.204-215
3. Kinman G, Grant C. Presenteeism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isks and solutions. *Occup Med (Lond)*. 2021;71(6-7):243-244.

4. Kim SJ & Kim KT. No matter who is sick, can't rest: The current status of sick leave and presenteeism in Korea and implications for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sickness benefit.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2020;391:1 - 10. <https://doi.org/10.23064/2020.09.391> (Korean)
5. Kim MH. The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Sickness Benefit After Covid-19 and Its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3(4):50 - 66. <https://doi.org/10.23062/2023.04.5>. (Korean)
6. sickness benefit system [Internet]. Sje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ited 2023 Sep 25]. Available from: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203&PAGE=3
7. Lee KS, Choi JW, Kim HC, & Kang TS. (2006). The Legal and the Official Management System Status of the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of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2006;31(3):219-236.
8. Siqueira VB, Rocha ASL, Schwingel PA, Carvalho FM. Prevalence of Presenteeism in Agricultural Workers: Systematic Review. *Workplace Health Saf*. 2023;71(7):318-324. doi:10.1177/21650799231154281
9. Hwang J, Cho SS, Kim JI. Association between insomnia and absenteeism or presenteeism among Korean employees. *Ann Occup Environ Med*. 2022;34:e41. Published 2022 Dec 6. doi:10.35371/aoem.2022.34.e41
10. Choi YE.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utilization for identifying occupations poorly-protected by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dissertation]. Asan, Soonchunhyang University, 2020 (Korean)
11. Schultz AB, Chen CY, Edington DW. The cost and impact of health conditions on presenteeism to employ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harmacoeconomics*. 2009;27(5):365-378. doi:10.2165/00019053-200927050-00002
12. Kigozi J, Jowett S, Lewis M, Barton P, Coast J. The Estimation and Inclusion of Presenteeism Costs in Applied Economic Evaluation: A Systematic Review. *Value Health*. 2017;20(3):496-506. doi:10.1016/j.jval.2016.12.006
13. Cooksey R, Husain MJ, Brophy S, et al. The Cost of Ankylosing Spondylitis in the UK Using Linked Routine and Patient-Reported Survey Data. *PLoS One*. 2015;10(7):e0126105. Published 2015 Jul 17. doi:10.1371/journal.pone.0126105
14. Arcury TA, O'Hara H, Grzywacz JG, Isom S, Chen H, Quandt SA. Work safety climate, musculoskeletal discomfort, working while injured, and depression among migrant farmworkers in North Carolina. *Am J Public Health*. 2012;102 Suppl 2(Suppl 2):S272-S278. doi:10.2105/AJPH.2011.300597
15. Siqueira VB, Carvalho FM. Presenteeism among fruit farm workers in Northeast Brazil: cross-sectional study. *Ind Health*. 2022;60(6):525-534. doi:10.2486/indhealth.2021-0105
16. Nagata T, Mori K, Ohtani M, Nagata M, Kajiki S, Fujino Y, et al. Total health-related costs due to absenteeism, presenteeism, and medical and pharmaceutical expenses in Japanese employers. *J Occup Environ Med* 2018;60(5):e273 - e280.
17. Bak, J., & Szalkowska, M. (2020). The Social Security of Farmers in Poland and in Selected EU Member States. *Olsztyn Economic Journal*, 15(3), 239-249.